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b>주임신부</b>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b>사목회장</b> 영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b>사무실</b>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b>선종봉사회장</b>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 연중 제 23주일 9월 6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시편 119(118), 137. 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대영광송>

[제 1독서] 예제 33, 7-9

[화 답 송] 시편 95(94), 1-2. 6-7. 11-12. 72-9(◎ 72과 82)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로마 13, 8-10

[복음환호송] 2코린 5, 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마태 18, 15-20

[영성체송] 시편 42(41), 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전세계 크리스천의 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 형태와 방법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의 숫자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은 족히 될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며 선하게 산다면... 어쩌면 세상은 오래전에 천국이 되었어야 맞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자인 우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참 슬픈 일이겠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분명하다. ‘인류의 행복’, 그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총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 하느님을 원망하는 이들은 ‘절대 권능의 창조주 하느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라고 말하곤 한다. 지금 지구(세상)의 시간이 1분 전 12시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이지 우리가 하느님께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느님은 애당초 그 대책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자주 기억하면 좋겠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관심”이라는 병이지 싶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평소와는 정반대로 ‘묻치면 죽고 물어지면 산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그 병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른들은 자녀나 아이들에게 ‘괜히 쓸데없이 남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그 병을 더 깊게 키워나간다. 요즘 어린 학

생들마저 주변 친구들에게 끔찍한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땐 놀라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오늘 복음 말씀은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형제적 충고”에 대해서 말한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든 타일러서 고쳐라.” 이유는 명확하다. ‘형제적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충고’는 매우 어렵다. 여러 해 전, 당시 딸을 결혼시킨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된 일이 있었다. ‘딸은 시집가서 잘 지내지?’라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너나 잘살아라’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어쭙잖은 충고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충고는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참 어렵다. 또 해봐야 사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타이름을 당한다는 건 불쾌한 일이다. 어쩌면 충고하란 말씀은 나 자신부터 더 열심히 살라는... ‘나에 대한’ 또 다른 충고가 아닌가 싶다. 사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충고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 때 받는 ‘예언직’의 소명이다. 이 직분에 많은 이들이 충실할 때 하느님의 나라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본다면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제1독서 참고)

김현신 요셉 신부  
춘천교구 스무숲본당 주임

###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9/6(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9/8(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연	김아네스(순이)	요아킴/안나회/살버반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생	심대레사	심베로니카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생	이클레어(해인)	이요안나(기자)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9/9(수)	연	김정순	구미카엘
	연	유대레사(춘성)	가족		생	심대레사	심베로니카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생	이클레어(해인)	이요안나(기자)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9/10(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연	지헬레나(부임)	지요한(영남)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생	심대레사	심베로니카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 가족		생	이클레어(해인)	이요안나(기자)
	연	이요셉(건용)	임비비안나(유지)	9/11(금)	생	심대레사	심베로니카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생	이클레어(해인)	이요안나(기자)
	연	김다윗(승우)	임루시아	9/12(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김다윗(승우)	소베드로(명환)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달/스텔라
	연	김중화/이열자	정대레사(혜경)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주임신부	임비비안나(유지)		연	김아네스(순이)	가족
	생	전례봉사자	임비비안나(유지)		생	심대레사	심베로니카
	생	심대레사	심베로니카		생	이클레어(해인)	이요안나(기자)
	생	송토마스(인환)	임비비안나(유지)				
	생	이클레어(해인)	이요안나(기자)				
	생	이제민	임비비안나(유지)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 835
- < 교무금 > \$4,080  
 김원덕(9) 황정숙(7-12) 소명환(9-10) 송성숙(1-12) 조병국(9)  
 조진행(9) 송정현(9) 김복희(8) 신기수(7-9) 최대준(9-10)  
 이육경(9-10) 허두근(4-8) 임윤택(9) 김형준(10-12)
- < 성소후원금 > \$ 120  
 소명환(9-10) 임윤택(9) 김형준(9-12)
- < Bishop's Appeal >  
 허두근(4-8)
- < 감사헌금 > \$1,100  
 임윤택, 허두근
- < 빈첸시오 노숙자 돕기 후원금 > \$ 610  
 김복희, 이영기, 이육경

**< 2020 비전 목표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레지나(9/7) : 조선덕, 임계분, 이육선

\* 빅토르(9/10) : 김명철

<p><b>광고문의</b>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b>정 태준(안토니오)</b> 자동차정비 &amp;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b>한인 크레딧 유니온은</b>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p> <p>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b>(408) 260-0900</b></p>
<p><b>송 이 웅 법 무</b>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b>조미정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p> <p>☎ (925)803-0200 ☎ (510)504-9250</p>	<p><b>J &amp; J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p> <p>☎(510) 236-0550 강 요한</p>	<p><b>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b>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p> <p>☎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p> <p>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b>데비 양(데보라) 보험</b> 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b>Repair</b></p> <p>(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p> <p><b>ANGEL</b> Tour &amp;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p> <p>Tel. <b>213-999-6294</b>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